

# 유로2016 스페인 · 이탈리아 첫 경기 승리

### 3연패 도전스페인 피케 결승골 앞세워 체코에 1-0 승 이탈리아 자케리니 · 펠레 릴레이골로 벨기에에 2-0 제압

사상 처음으로 유럽축구선수권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무적함대' 스페인과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가 유로2016 첫 경기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뒀다.

스페인은 13일 오후 10시(한국시간) 프랑스 툴루즈의 스타디움 드 툴루즈에서 열린 체코와의 유로2016 D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42분에 터진 수비수 헤라르드 피케(FC바르셀로나)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유로2008, 유로2012에서 정상에 오른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대회 3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스페인(1승)은 크로아티아(1승)와 함께 D조 공동 선두에 올랐다. 스페인의 맹공을 잘 막았던 체코는 막판 집중력 저하로 승점을 얻는데 실패했다. 터키와 나란히 1패를 기록했다.

피케는 0-0으로 팽팽했던 후반 42분 팀 동료 이니에스타(FC바르셀로나)의 패스를 결승골로 연결해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스페인과 체코는 오는 18일 각각 터키, 크로아티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스페인은 다비드 실바(맨체스터시티), 파브레가스(첼시), 이니에스타, 세르히오 부스케츠(이상 FC바르셀로나) 등 특급 미드필더를 모두 선발로 내보내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스페인 이 전반 볼 점유율에서 68%~32% 슈팅 개수에서 8개(유효슈팅 3개)-3개(1개)로 압도한 것을 감안하면 전반은 체코가 원하는 쪽으로 경기가 흘렀다.

스페인 후반 시작과 함께 강하게 압박했다. 후반 17분 모라타를 빼고 아리츠 아두리스(빌바오)를, 25분 파브레가스를 데

신해 티아고 알칸타라(바이에른뮌헨)를 투입해 변화도 가졌다.

비센테 델 보스케 스페인 감독은 후반 37분 공격수 페드로 로드리게스(첼시)를 투입해 마지막까지 골을 노렸다.

가이어 5분 만에 결실을 봤다. 후반 42분 왼쪽 측면에서 이니에스타가 올린 크로스를 피케가 쇄도하며 헤딩슛으로 연결, 체코의 골망을 흔들었다.

체코는 87분을 잘 막았지만 무승부가 보이던 막판에 집중력 난조로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유로2012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는 14일 프랑스 리옹의 스타드 리옹에서 열린 와의 E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엠마누엘레 자케리니(볼로냐)와 그라치아노 펠레(사우샘프턴)의 릴레이 골에 힘입어 벨기에를 2-0으로 제압했다.

유로2000 이후 16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벨기에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로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과 함께 강력한 우승후보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평가전에서 이탈리아를 3-1로 꺾었던 벨기에는 44년 만에 타이틀이 걸린 공식 대회(상인대포팅)에서 이탈리아전 승리를 노렸지만 실패했다.

수세에 몰렸던 이탈리아는 전반 32분 자케리니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온 롱패스를 안정된 트래킹에 이은 오른발 슈트로 연결해 벨기에의 골네트를 갈랐다.

벨기에 수비라인을 순식간에 허문 수비수 레오나르도 보누치(유벤투스)의 롱패스가 돋보였다.

초반 주도권을 잡았던 벨기에에 실점 이후 급격한 수비 조직력 와해를 드러냈다. 1-0으로 후반을 맞은 이탈리아는 후반에



스페인인 13일 오후 10시(한국시간) 프랑스 툴루즈의 스타디움 드 툴루즈에서 열린 체코와의 유로2016 D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42분에 터진 수비수 헤라르드 피케(FC바르셀로나)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장기인 탄탄한 수비를 과시했다. 벨기에의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오히려 역습을 통해 상대를 괴롭혔다. 후반 추가시간에 펠레의 추가골로 승부

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탈리아는 17일 스웨덴 벨기에에 18일 아일랜드와 2차전을 갖는다. /김민근기자



### 추신수, 25일만에 복귀...시즌 1호 홈런포 작렬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리며 타격 감각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콜리세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지난달 2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43일만에 나선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왼쪽 햄스트링에 통증을 느껴 경기 도중 교체된 후 이날 25일만의 복귀전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린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00(20타수 4안타)이 됐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상대 좌완 선발 선 마니아의 2구째 포심을 밀어쳤지만 좌측 펜스 워닝 트랙에서 잡히며 아쉬움을 삼켰다.

3회 2사 2루 상황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세 번째 타석에서 추신수의 방망이가 살아났다.

추신수는 팀이 1-10 뒤지고 있던 5회초 오클랜드 선발 선 마니아를 상대로 풀카운트 접전 끝에 88마일(약 143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치며 중월 솔로 홈런을 만들어냈다.

추신수는 9회초 무사 1루 찬스에서 재커리 닐의 초구를 공략했지만 병살타로 물러나며 경기를 끝냈다.

/김민근기자

### U-20 월드컵 엠블럼 · 슬로건 내일 공개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엠블럼과 슬로건이 베일을 벗는다.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는 오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엠블럼과 슬로건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엠블럼과 슬로건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알리는데 적극 활용된다.

한국에서 U-20 월드컵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는 내년 5월20일부터 6월1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 세계 24개국이 출전한다.

/김민근기자

# NBA 결승 5차전 클리블랜드 골든스테이트 꺾고 '기사희생'

### 제임스 · 어빙 나란히 41득점 112-97 승리...2승 3패 기록

벼랑 끝에 몰렸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무려 82점을 합작한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의 활약을 앞세워 골든스테이트를 꺾고 승부를 6차전으로 끌고 갔다.

클리블랜드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오라클 아레나에서 펼쳐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결승(7전4선승제) 5차전에서 112-97로 승리했다.

시리즈 전적 1승3패로 뒤졌던 클리블랜드는 6차전 홈에서 시리즈 통틀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면 안방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준비했던 골든스테이트는 NBA 파이널 2연패 달성의 기쁨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 쌍포가 나란히 41점씩을 몰리며 골든스테이트의 림을 맹폭했다. NBA 파이널 역사상 한 팀에서 2명의 선수가 나란히 40득점 이상 올린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임스는 41점 16리바운드 7어시스트 3블록슛 2스틸로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어빙도 4쿼터 중반 승부차에서 연속 10득점하는 등 41점 8어시스트 2스틸로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골든스테이트는 황금트리오의 한 축인 드레이먼드 그린에 결장한 가운데 경기 초반 스텔론 커리와 클레이 탐슨의 외곽슛이 잇따라 터지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클리블랜드는 제임스가 꾸준히 득점을 쌓으며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어빙도 고비 때마다 공격에 가세하며 경기를 접전 양상으로 끌고 갔다.

결국 양팀은 전반을 61-61로 균형을 맞춘 채 후반을 맞았다.

후반 들어서는 클리블랜드가 기세를 올렸다. 어빙의 돌파로 3쿼터를 시작한 클리블랜드는 제임스와 어빙의 3점슛, 트리스

탄 탐슨의 레이업슛 등으로 점수차를 서서히 벌렸다.

클리블랜드는 4쿼터에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제임스와 어빙이 계속해서 상대 림을 공략했다. 어빙은 101-92로 앞선 상황에서 홀로 10득점을 연속으로 책임지는 원맨쇼를 펼치며 골든스테이트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골든스테이트는 탐슨이 3점슛 6개 포함 37점을, 커리가 3점슛 5개 포함 25점을 넣었지만 수비에서 그린의 공백이 커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3쿼터 수비 도중 센터 앤드류 보거트가 무릎을 다쳐 교체되는 바람에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김민근기자

### 대학 축구부 감독 금품 의혹...학교 "사실 아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측이 자체 조사를 벌여 "진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14일 광주 모 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소속 축구부 등 운동부에 대해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 의혹 등도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학교가 지원한 예산과 사용 내역 수치가 맞지 않은 부분이 파악돼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최근 축구부 A 감독이 소속 선수 프로그래밍 입단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